

길

마음이 통하는
VOL.9



기획특집
황금주파수 대혼란,
무엇이 문제인가

KTTU 클로즈업 01
미래부의 부당 주파수할당정책 규탄 투쟁
노동계 이슈
퇴직연금제도, 꼼꼼하게 살펴보자
길따라 멋따라
슬로시티로 떠나는 느린 여행

길

마음이 통하는
VOL.9





休,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지루한 장마와 타는 듯 한 무더위.
지치고 나른한 몸과 마음에 온전한 휴식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왜일까요?

휴식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어떤 행위의 요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행이나 여가 등 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의 결과만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휴식조차 성과를 얻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된 것이죠.

휴식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 아니죠.

어떤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휴식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며 사색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휴식입니다.

괴테는 '발견'이라는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나 홀로 숲 속을 걸었다
아무것도 찾지 않은 채...
그것이 내 의도였다.」

휴식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든 누릴 수 있습니다.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운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완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3년 8월 6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애드그린(주) 02-498-6254



04 KTTU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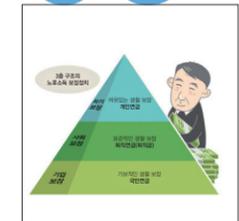


08 기획특집 '황금주파수'대혼란, 무엇이 문제인가

14 KTTU 클로즈업 01 부당 주파수할당정책 규탄 투쟁 일지



07²⁰¹³ 08 vol.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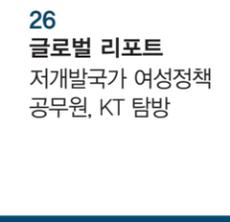


20 KTTU 클릭 노·사가 함께하는 'allah 가족캠프'



24 노동계 이슈 퇴직연금제도, 꼼꼼하게 살펴보자

26 글로벌 리포트 저개발국가 여성정책 공무원, KT 탐방



28 길따라 멧따라 - 슬로시티로 떠나는 느린 여행 - 늦어름 제철 재료 7가지



표지 '생존권 확보 위한 대동단결' KT그룹노동조합의 미래부 주파수할당정책 규탄 투쟁



32 그림과 대화하기

KTTU news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표자 회의 열려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운모 위원장은 6월 12일(수) ~ 13일(목) KT도고수련관에서 개최된 연맹 대표자 회의에서 자신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1천만 원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고 기부했다.

정 위원장은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몇 년간 단사로 있다가 한국노총 IT연맹에 들어와 보니 내가 알던 것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며 "연맹에는 수백명 이하 중소기업 노조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 딸아이도 88만원 세대라 취업에 많은 고생을 해, 축의금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애들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적 난제이기 때문에 연맹뿐 아니라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반드시 관심 뒤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집행부와 산하 연맹 위원장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연맹 차원 비정규직 대책기구 마련 제안

정 위원장은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대책을 연맹 차원에서도 더욱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기구는 위원장 직속 특별 위원회로 설치하되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도록 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간부와 산하 노조위원장들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수행사업은 기금모금, 비정규직 직접 지원,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등이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최두환 공동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은 "정 위원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고, "연맹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판매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안내



LTE 시장점유율 2위 달성 및 생산성 향상의 공동노력을 위해 지급하기로 합의(2012년11월 20일)한 판매장려금 지급.

- **지급일** : 2013년 7월 1일(월)
- **지급액** : 1인당 60만원
- **지급계좌** : 별도계좌
- **지급기준** : 2013년 6월 30일 현재 재직자
 - 5개 신설법인(KT에스테이트, KT미디어허브, KTSat, KT스포츠, BestPartners) 전출직원 포함
 - 비상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임원/상무보는 제외

구내식당 운영 노사합동 실태점검 실시



최근 조합원의 복지후생 시설인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 노사합동으로 구내식당 지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메뉴의 선정 등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점검 시행.

- **점검기간** : 2013년 6월 26일(수) ~ 6월 28일(금)
- **점검지역 및 점검자**
 - 1조 (강북, 강원, 충북, 대구, 부산) : 정책1국장, 복지팀 담당자
 - 2조 (서부, 강남, 충남, 전남, 전북) : 복지국장, 복지팀 담당자
- **점검항목** : 지원금 사용내역, 구내식당 메뉴 확인, 의견 수렴 등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연맹 201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열려



KT노동조합은 지난 6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5층 현대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13년도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 이날 IT사무서비스연맹(공동위원장: 최두환, 정운모)은 규약 제14조에 의거, '2013년도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 대의원 113명 중 83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목적사항들을 모두 가결했다.

연맹 부위원장 등 KT조합간부 대거 선출

목적사항은 ▲2012년 사업연도 사업보고 ▲201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3년 사업연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연맹임원 및 한국노총 파견자 선출 등이었다. 이에 연맹은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50명(KT노동조합 7명) △한국노총 파견 선거인 180명(KT노동조합 49명) △한국노총 파견 중앙위원(KT노동조합 3명) △연맹임원 등을 선출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연맹 임원으로는 △수석 부위원장에 KT링크스 노동조합 이삼재 위원장, △부위원장에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과 Ktds 노동조합 이철희 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했다.

KT노동조합 합류로 ICT산업 책임주체로 거듭

최두환 연맹 위원장은 먼저 "4월 30일 KT노동조합을 필두로 11개 KT그룹노조 3만 조합원이 가입해, IT연맹은 국내 유무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망라한 5만여 막강조직으로 거듭났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내 ICT 산업을 이끌 책임 주체로 거듭나게 해 주신 정운모 공동위원장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또 "전체 회원노조가 연맹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ICT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노동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IT연맹 3대 핵심사업으로는 △ICT 회관 건립(확보) 추진 △ICT 발전을 위한 전문가포럼 구성 △해외 ICT 유관 노동조합과의 국제교류 등을 꼽았다.

확정기여형(DC) 및 혼합형(DB+DC) 퇴직연금제 전환시행 안내



2013년 확정기여형(DC) 및 혼합형(DC+DB) 퇴직연금제 전환 시행에 따른 사항.

- **대상**
 1. 직원 중 희망자(청원경찰 포함)
 - 임원, 상무보, 전문컨설턴트/계약직 제외
 2. 기존 DC형 전환자 중 금융기관 변경 희망자 (혼합형 전환은 불가)
 - 단, DC가입상품에 따라 약정해지에 따른 패널티 발생가능
 - **제외사항**
 1. 급여/퇴직금 압류자
 2.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 단, 2013년 7월 12일 까지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 완료시 전환가능
 - **신청유형(택일)**
 1. DC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2. 혼합형(DC+DB)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확정기여형 (DC) 선택 시**
 - 매년 12월말 연도 임금 총액의 1/12을 이듬해 1월에 본인계좌로 납입 이체
 - DC 전환 시에 DB형 또는 혼합형으로 전환 불가
 - **혼합형 (DC+DB) 선택 시**
 - 전환일 기준(2013.6.30) 이전 적립금은 DC형 + 전환일 기준(2013.6.30)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향후 DC형 전환 희망 시 전환가능
- ※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 해당 게시물의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비 근무일 문서결재 시스템 접속제한 추진



KT노동조합은 휴일에 비정상적 출근 및 휴가 후 출근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ICIS / NeOSS 시스템에 이어 종합문서 시스템을 접속 제한하기로 결정하여 공지.

- 목적 : 무분별한 휴일근무를 자제하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 비근무일 접속제한 진행경과
 - 비근무일 사내시스템 접속차단 검토협의 : 2012년 12월
 - ICIS / NeOSS 접속차단 : 2013년 2월 ~
 - 문서결재시스템 접속차단 : 2013년 7월 ~
 - ※ 비근무일 : 연차휴가일, 휴일근무 미승인 상태의 휴일/휴무일
 - 적용일 : 2013년 7월 8일(월) ~
 - 대상시스템 : 문서결재 시스템
 - 차단범위
 - ① 기간 : 전직원 대상 비근무일 접속 차단
 - ② 결재 : 직책자 및 결재권자는 결재 허용
- ※ VPN, mVDI 등의 사외접속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속불가

대체휴무제 운영안내



- 개요

업무 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소속 직원에 대해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휴무일(토요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하는 제도를 말함.
 - 운영 프로세스
 - ① 휴무일 근무 지시 → ② 복무입력 → ③ 복무승인 → ④ 휴무일근무 수행 → ⑤ 휴무일근무 확인 → ⑥ 대체휴무
 - 유의사항
 - 대체휴무 지정 시 사전 지정(사후 대체휴무 지정 및 변경 불가)
 - 계획된 대체 휴무일에 반드시 휴무 실시
 - 단,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휴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대체휴무일에 청원휴가 사유 발생 등에 의한 취소는 가능
 - 신설된 반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지정 불가
- ※ 자세한 내용과 Q&A 는 자료실「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하반기 복지포인트 지급안내



2013년 하반기 복지포인트 지급.

- 대상 : 상무보 이하 전직원 (지급일 현재 재직자)
- 지급포인트 : 30만 포인트
- 지급일자 : 2013년 7월 10일(수)

임직원 중고생 자녀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 가입 이벤트

KT노동조합에서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경품추첨 이벤트 추진.

- 목적 : 여름방학 시즌 대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 내용 : 2013년 7월 말까지 수강신청 회원 대상 경품 이벤트 추진 (7월 이전 가입한 경우도 추첨대상)
 - 중등 : s-패드(수박씨 학습전용) 1명, 베스킨라빈스(기프트쇼) 100명, 가입자 전원 무료교재 1권

7월까지 가입·임직원 인증시 ▼

중학생 soobok 가입자

s-pad 10.1 (1명 추첨)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100명 추첨)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100명 추첨)

비상교재 1권 (전원)

비상교재 1권 (전원)

고등학생 Kedu 가입자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50명 추첨)

※ 서비스 가입·임직원 인증 시 본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 s-Pad, 쿠폰, 기프트쇼(베스킨라빈스)는 8월 초까지 발송 및 발급됩니다.
 ※ 비상교재 쿠폰은 KT 임직원 인증 시 수박씨닷컴 계정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 회원가입 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트쇼가 발송되며, 잘못된 번호 기재로 인한 오발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고등 : 베스킨라빈스(기프트쇼) 50명
- 기타사항
 - 서비스 가입, 임직원 인증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
 - s-Pad, 쿠폰, 기프트쇼(베스킨라빈스)는 8월 초까지 발송 및 발급
 - 비상교재 쿠폰은 KT 임직원 인증 시 수박씨닷컴 계정으로 자동 발급
 - 회원가입 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트쇼가 발송, 잘못된 번호 기재로 인한 오발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성과급 지급안내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일반직, AM직 및 고객센터직 직원(청경 포함)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지급기준액 × 지급률
 - 지급기준액 : 월 기준급
 - 지급률 : 일반직(100%), AM직(70%) (고객서비스직은 평균 지급률에 전월 실적을 반영하여 지급)
 - 계산기간 : 2013년 6월 1일 ~ 7월 31일(61일)
 - 지급일 : 2013년 7월 25일(목)
- ※ 세부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노사, 봉사활동을 통한 UCC 회원사의 미혼남녀 만남자리 마련

KT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26일(금), 기업 간 노사협의체(UCC) 회원사의 미혼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주공아파트단지 일원 능골공원에서 '봉사미팅'을 시행했다.



KT노사를 비롯한 UCC 회원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공헌과 동시에 미혼남녀 간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은 노후화된 아파트 벽면에 벽화 그리기와 조별로 진행된 체육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인으로 발전할 토대를 다졌다.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은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 함께 결혼 적령기 임직원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KT노사는 UCC 회원사와 함께 소외계층 지원, 미래인재 육성, 글로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2011년 설립돼 KT노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과 함께 설립하여 현재 경기도시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TRA,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의 회원사의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기업 간 노사협의체다. UCC는 직원 1인당 연간 8시간 봉사활동, 직원 1인당 월 1천원 기금모금, 글로벌 봉사활동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황금주파수 대혼란, 무엇이 문제인가?

LTE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논란



주파수
경매

kt

600만
LTE 고객

1.8GHz



최근 정부가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수요를 고려해 추진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용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 방식을 두고 이동통신업계 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 부는 오는 8월 2일까지 LTE용 신규 주파수인 1.8GHz와 2.6GHz 대역에 대한 할당 신청을 받은 뒤 8월 넷째 주에 경매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래부는 접수가 끝나면 각 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친 뒤 경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의 쟁점

이번 주파수 논란의 핵심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대역과 인접한 1.8GHz 대역 주파수(D대역)다. 이른바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이 주파수 대역을 KT가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D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큰 활용가치가 없는 실정이지만 경쟁사인 KT가 이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경우 향후 LTE 통신 서비스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양사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입찰경쟁을 통해 해당 대역의 가치만큼 낙찰가를 지불하면 D대역 주파수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매방식을 제안했다. 즉 D대역의 할당 여부까지도 입찰경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D대역이 포함되지 않은 주파수 할당안(밴드플랜1)과 포함된 주파수 할당안(밴드플랜2)을 복수로 제시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시장가치가 높은 밴드플랜이 선택되도록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D대역 주파수의 할당 여부도 결정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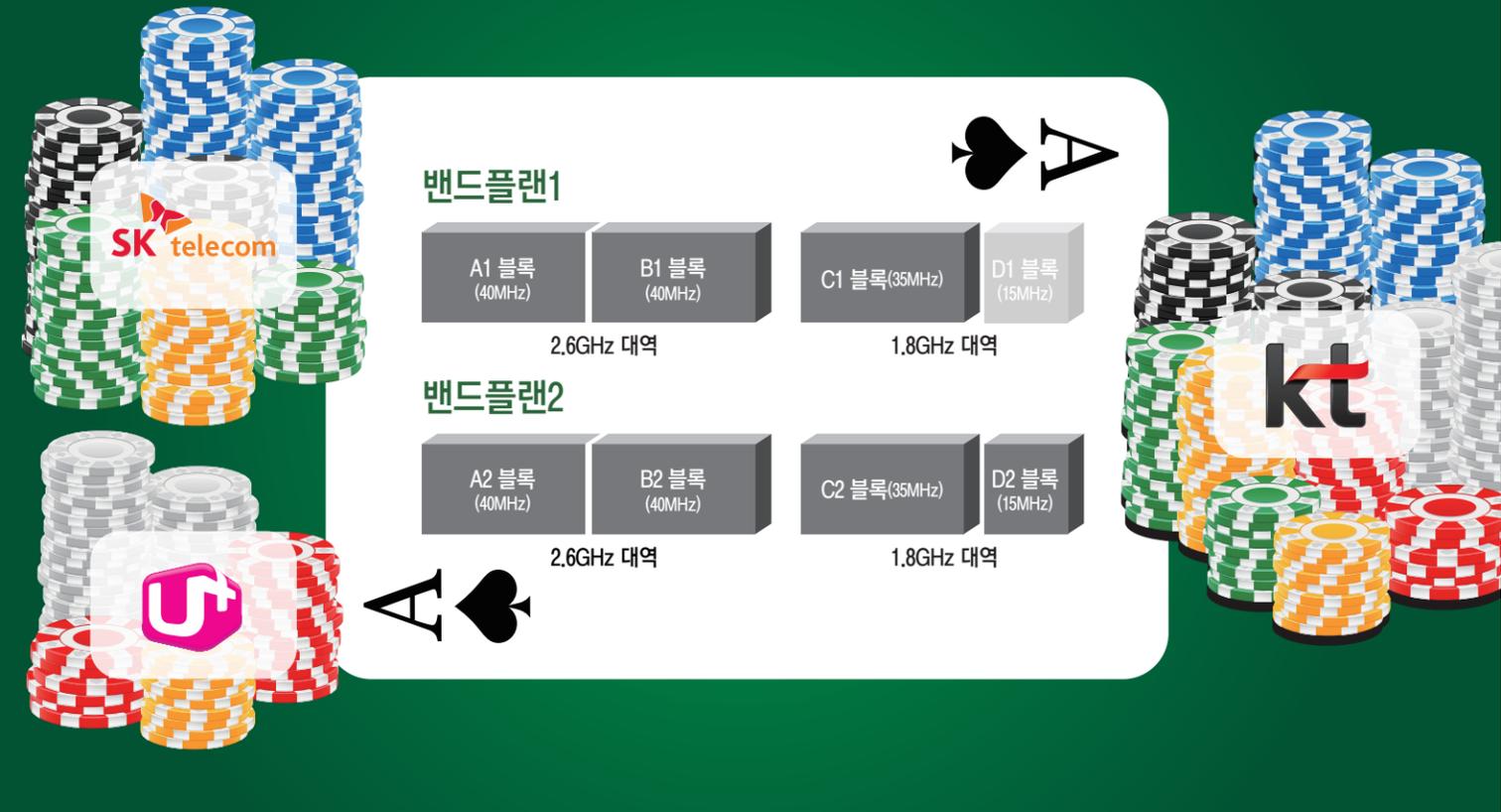
정부가 일명 '황금 주파수'라 불리는 1.8GHz KT 인접 대역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두 개의 대역을 경매를 거쳐 사업자들의 입찰금 총합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안을 결정하자 즉각 비판이 제기 되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경매 방식조차 경매에 부쳤다는 것이다. 경매를 앞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 역시 경매 방안 수정을 정부에게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절대 변화 없음'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경매 안을 두고 거세지는 통신 3사의 반발

일반적으로 심사대신 경매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그 공정함에 있다. 경매의 기본 조건 역시 바로 공정함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찰자 간 담합,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경매 참여 저지, 입찰자를 경매에서 퇴출시키는 약탈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래부의 경매 방법에는 경매 자체의 오류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의 불씨가 여전하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 방안이 국민 재산인 주파수를 통신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도록 하는 안이라며 공정 경쟁 체제에 맞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각 통신사업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것 자체가 불만이다. 당장 추가 투자비용 없이 KT는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



능한 만큼 특혜라는 것이다. KT의 입장은 정반대다. 현재 할당안 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쟁사들의 담합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다가 경쟁사들이 낙찰가를 높여 KT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올머겨자 먹기’식으로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매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매방식을 두고 우선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매설계의 기본 원칙인 담합 방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과거 경매 사례를 볼 때 이번 경매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얻기보다는 KT의 인접 대역 확보를 저지하는 데 전력을 다할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의 경매 방식대로라면 황금주파수를 둘러싸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사업자들의 입찰 금액을 합치도록 해서 상대 입찰자인 KT의 참여를 저지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매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위배되는 일이다.

경매라는 것은 해당 주파수 블록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당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측에 낙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매안에서는 KT가 제시한 입찰 가격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른 블록에 제시한 입찰 가격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만 낙찰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KT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낙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런 경매 방식의 결정적 하자 때문에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KT의 경매 참여와 낙찰을 저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적 배분에 위배

전파법에 따라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경매 설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경매안은 경매를 통해 할당안 자체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 배분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동일한 주파수를 두 개의 밴드플랜으로 나눠서 경매에 부쳤기 때문이다. 원하는 밴드플랜(할당안)부터 선택하게 하는 경매 방식은 지나치게 가격 논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는 것은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적정 가치로 선택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LTE 트래픽 증가 속도와 보급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해외 주요국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정된 주파수 할당은 각 통신사업자나 정부의 이익보다는 국가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한정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계적으로 경매를 통한 입찰 가격만을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정책적으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혜시비를 삼기 보다는 인접 대역 우선 할당 원칙 등 광대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 역시 참고할 만 하다. 특정 사업자의 인접 대역이라고 해서 할당하지 않은 사례는 오히려 역차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 사의 이익만을 위해 KT 인접 대역 할당을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접근한다면 KT 인접 대역 할당은 조기에 3사 간 전국 광대역망 구축 경쟁을 유발해 오히려 소비자는 물론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황금주파수 확보 이후도 문제

또 다른 논란점은 이번 정부 경매 방식이 바로 소위 ‘승자의 저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입찰자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경매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타사의 주파수 확보 저지를 용이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 횟수가 50라운드로 끝나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나올 정도로 경매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의 주파수 경매 사례를 볼 때 이는 너무 안이한 예측이라는 분석이다.

2011년 8월에 국내에 처음 실시된 엔 쟁점 주파수 대역 입찰에서도 SK텔레콤과 KT가 뛰어들어 하루에 10라운드씩 최종 83라운드까지 진행한 끝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약 1조원 가까운 돈을 써내 KT의 광대역화를 방해하고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다. 이번에는 경매 횟수가 50라운드까지로 제한되지만 광대역 LTE에 각 사업체들이 사활을 건 만큼 최종 낙찰가액은 2011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열경매로 인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연결되고 이는 국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진다. 많은 경제전문가 역시 주파수 확보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체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이 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는 주파수 할당 시 대가할당 혹은 경매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매방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를 각 선진국들은 정책적으로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매 방식이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할 개연성이 충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파자원은 전파를 기반으로 한 통신산업의 필수 생산 요소다. 전파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이다. 희소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주파수 대역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파정책 당국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이번 경매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각 통신사업자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공정한 주파수 할당이 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소중한 주파수 자원 할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내 통신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13년 7월 9일(화) 15시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경매안이 재벌편중 정책으로 드러나자, KT그룹 노동조합은 “KT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 지을 절체절명의 싸움이자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재벌기업의 담합과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KT그룹 노동조합의 책무”라고 규정짓고 5,000여 조합원 결의대회와 500여 조합간부 선도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했다.

부당 주파수할당정책 규탄 투쟁 일지

30만 KT가족 생존권 지키는 일

KT그룹노동조합, 재벌기업에 좌지우지되는 원칙 없는 정책에 맞서 흔들림 없는 투쟁!

KT그룹노동조합은 그 동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결손 아동 후원뿐 아니라 장학사업지원,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단체교섭에서는 대기업노동조합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극복 및 창조경제 기여 등을 위해 양보교섭을 통해 교섭을 신속히 타결한 바 있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모색,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기도 했다.

그러나 KT노동조합과 KT가 이렇게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음에도 정부가 금번에 발표한 주파수 할당안은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이는 정부정책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보이기 보다는,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우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SKT와 LGU+가 담합하여 경매대금을 올려버리면 KT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는 형평성을 잃은 안이었기 때문이다.

KT그룹노동조합은 이미 SKT의 800MHz 대역 독점 사용 인정, LGU+의 비경매 할당 인정 등 심각한 불공평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신권 보장 등 대승적인 측면을 위해 인내하고 양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벌위주의 주파수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재벌기업들에게 KT를 고스란히 바치라는 말과 다를 없다. 따라서 KT그룹노동조합은 30만 KT가족의 미래가 걸린 주파수 경매의 공정한 룰 적용을 위해 주말과 휴가도 반납한 채 지난 7월 한달 간을 꼬박 투쟁에 쏟았다.

KT그룹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30만 KT그룹 가족들에게 인내를 얘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향후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출정에서 폭우 속 대국민 선전전에 이르기까지, '내 일터는 내가 지키겠다'는 다부진 각오와 열기로 뜨거웠던 그 간의 투쟁 기록을 따라가보자.



부당 주파수할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첫 번째 포문은 기자회견이었다. 노동조합은 7월 2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사옥 앞에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T그룹노동조합 정운모 위원장을 비롯하여 500여 명의 KT그룹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여 주파수 정책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이날 KT그룹노동조합 정운모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주파수 할당 안은 정부정책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없고, 무엇보다 창조경제마저 부정하는 방안인 것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 뒤 “재벌기업인 SKT와 LGU+가 담합으로 경매대금을 올려 KT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안”이라고 규탄했다. 그간 KT그룹노동조합은 정부의 여러 가지 불평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신 산업의 만행으로서, 100년 통신기업 노동조합으로서 국민의 통신권 보장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여 왔으나 KT그룹 30만 가족의 생존권과 미래가 걸려있는 이번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리는 자리였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며, 전향적이고 조속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KT그룹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서 생존권 투쟁 결의

노동조합은 기자회견 이후 발 빠르게 투쟁지침을 하달, 지부장 이상 조합간부는 24시간 이상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가를 보류했다. 또한 7월 4일(목) 분당사옥에서 '제1차 KT그룹노동조합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당경매안 철회를 촉구하는 KT그룹노동조합 차원의 생존권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KT노동조합 정운모 위원장,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지방본부위원장과 각 지방본부 조직·지원국장, 그리고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경매 문제점 공유 ▲현안사항 및 향후일정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정운모 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투쟁을 부르는데, 노동조합이 생존권 투쟁을 마다할 명분이 결코 없다”며 비상체제 돌입 및 사실상 투쟁시작을 선포했다.

12개 지방본부 지부장회의 소집

노동조합은 이어 다음날인 5일(금) 투쟁명령 지침에 따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를 열었다. 12개 지방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지원국장들이 KT그룹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속 지부장들에게 먼저 주파수할당 부당경매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향후 투쟁지침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조합은 이날 주말 동안 비상 대

기할 것과 이후 진행할 선도투쟁, 대국민 선전전 등에 관한 지침을 논의했다.

과천정부청사 앞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 개최



그리고 지난 9일(화) 오후 3시, KT그룹노동조합은 전국에서 모인 KT그룹조합간부 및 조합원 5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이 주최한 대회에 5천여 명의 조합원이 한꺼번에 모인 것은 근 10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만큼 이번 주파수 경매정책이 고용과 생존권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부로 다가 오는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반증이다. 노동조합과 5천 대오는 이날, 재벌경쟁사에 유리한 이번 주파수 할당정책을 규탄하고, 미래부에 국민과 KT그룹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2011년 돌 쉼인 쌀과 같은 900MHz 불량주파수를 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또 다시 KT에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한다”며 “KT만 발을 묶고 뛰게 하는 경주가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나”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위원장은 뒤 이어 첫째, 경매절차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즉시 보완할 것. 둘째, 900MHz 불량주파수를 즉시 클리어링 할 것. 셋째, 주파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재벌과 야합해 정책실패를 가져 온 책임자를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위원장은 참가자들의 드높은 함성 속에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남지방본부 한 여성 조합원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는 정말 애타게 기다려 온 주파수 경매인데 날강도 같은 경매안을 보니, 분노로 가슴이 들끓었다”

며 “미래부는 지난 십 수년간 피땀 흘려 통신기반을 마련하느라 산간오지를 누빈 우리 조합원들이 안보이나”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KT그룹 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앞으로 ‘KT그룹 노동조합 요구’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선도투쟁 500여 조합간부, 서울시내 대국민선전전 및 새누리당 앞 기자회견

10일(수) 오전 8시에는 KT 분당본사 사옥에서 500여 조합간부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투쟁’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500여명의 선도투쟁 조합간부들은 출정식 후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에서 대국민선전전을 실시한 뒤, 여의도로 이동해 집회 및 새누리당 당사 앞 기자회견, 광화문 집회 등을 소화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정부 과천청사 등 7군데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번 주파수할당 경매 안의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대국민 선전전을 접한 시민들은 예상보다 많은 호기심을 보였고, 조합간부들 역시 궁금해하는 시민에게 주파수 경매의 공정치 못함을 적극 피력하며 호응을 이끌어 냈다.

10여 군데 동시 대국민선전전 후 종각집결에 이어 여의도를 찾은 조합간부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파수 정책 결정과정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KT그룹노동조합 호소문을 전달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새누리당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부 경매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광대역서비스 조기시행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민편익을 훼손하고 자원낭비를 유발하며 ▲재벌과 국민기업 KT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경매방식으로 반장선거에서 재벌집 아들이 무조건 승리하는 방식으로 ▲미래부는 세계 1위 ICT산업 경쟁력 유지



보다는 주파수 장사로 돈만 챙기려 역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마무리 광화문 집회에서 조합간부들은 시민을 “우리는 월급 몇 푼 올려달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닌, 생존과 국민 편익이 우선시 되는 정책입안환경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500여 조합간부, 폭우 속에서 여의도, 보신각, 광화문서 집회 개최

“시민 여러분!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통신주권을 보호해야 할 미래부가 지구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경매안을 시행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한 경주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KT그룹노동조합은 11일(목)에도 여의도, 종각, 광화문에서 쉬지 않고 위와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집회 및 거리행진을 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촉구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이어갔다.

11일 간의 선도투쟁 마무리, ‘호시우행(虎視牛行)’ 자세로 정진할 것!

“30만 KT가족 생존권 쟁기기 본격 서막 올랐다!”

KT그룹노동조합 500여 조합간부들은 7월 12일(금) 아침 KT 분당사옥에서 ‘주파수 부당 경매 철회 촉구’ 집회 후, 보신각으로 이동해 규탄집회를 연 뒤, 오후 1시 KT 서초사옥 앞에서 11일간의 선도투쟁 일정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정운모 위원장은 “KT그룹노동조합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 기조를 지켜본 후, 긍정적 변화가 없으면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하며, “미래부와 재벌, 언론이 아무리 KT를 흔들어도 좌우 흔들림 없이 ‘호시우행(虎視牛行)’ 자세

로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 동안 모든 참가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선도투쟁에 동참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언론 등 주요기관에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었으며, 많은 국민이 이번 주파수정책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소기의 성과를 일궈냈다.

선도투쟁기간 동안 내부 결집 강화 언론 보도자료 통해 외부 관심 적극 유도

지난 6월 28일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경매안이 KT에만 불리한 재벌편중 정책으로 드러나자, 정운모 위원장은 “KT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를 절체절명의 싸움이자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재벌기업의 담합과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KT그룹노동조합의 책무”라고 규정짓고 투쟁을 선언했다.

따라서 KT그룹노동조합은 지난 7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 경매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3박 4일간 5,000여 조합원 결의대회와 500여 조합간부 선도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악의적인 루머를 생산해 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정부 관계만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쏟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방통위는 주파수 투쟁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18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유독 KT만 지목해 나 홀로 영업정지 7일을 결정했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불러올 만 하다. 그러나 KT그룹노동조합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주파수 경매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이어, 주파수 할당 부당경매 철회 촉구 투쟁과 맞물려 900MHz 해결을 촉구하는데 따른 KT 900MHz 대역이동을 위한 추

가 현장 테스트 진행이라는 미래부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쟁이 시작된 지 한달 여가 넘었지만 노동조합은 여전히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 매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부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는 등, 대 언론 홍보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한 경쟁을 원할 뿐이다’ ‘주파수 경매, 끝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

지난 2일, 통신 3사가 신규주파수 할당 경매 신청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총 수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매 낙찰가를 둘러싼 영토전쟁이 드디어 막이 올랐다.

오는 8월 중순부터 오름차순 방식으로 50회 경매가 진행된 후, 최종 낙찰가가 없을 경우 막판 1회인 51회차에 밀봉방식 경매를 통해 최종 낙찰기업이 가려지게 된다. 미래부는 이달 말께 최종 주파수 경매 낙찰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통신 3사가 모두 입찰 신청을 끝냈으니, 호연장담한 대로 미래부가 최대한 공정한 경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선은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부는 새정부 들어 시행한 미래부의 첫 번째 현안정책이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경매에 올바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KT그룹노동조합은 미래부의 세부 경매 방식에 주목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부와 경쟁사가 호연장담한 담합불능, 공정성이 과연 엄격히 지켜질지, 30만 가족과 함께 매의 눈으로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HOT!

11일간의 선도투쟁!
더 큰 투쟁 자신있다!

11일간의 단거릴! 주파수 투쟁 이모저모

KT그룹노동조합은 지난 7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불공정한 주파수할당 경매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000여 조합원 결의대회와 500여 조합간부 선도투쟁 일정을 11일간 가열차게 전개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주파수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성과를 일궈냈다. 앞으로도 KT그룹노동조합은 KT를 흔들려는 세력과 경쟁사의 언론플레이에 흔들림 없이, 그룹 30만 가족의 생존권과 고객인 국민의 통신주권을 사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오로지 공정한 경쟁이다!
KT그룹 노동조합은 정윤모 위원장이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 기조를 지켜본 후, 긍정적 변화가 없으면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하며 조합간부들을 독려하고 있다.




폭우 속에 울려 퍼진 KT그룹노동조합의 뜨거운 함성
500여 조합간부가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아랑곳 없이 부당 주파수 경매 철회 촉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찬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재벌편중 정책을 기획한 미래부의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즉석에서 만든 수제 레인부츠
하루 종일 이어진 빗 속 행진 때문에 통통 불은 신발 속 축축한 발. 이날 참가자들은 조금 덥기는 하지만 비닐로 만든 즉석 레인부츠 덕을 톡톡히 봤다.

고단한 강행군 속 쪽잠!
30분 밖에 주어지지 않은 식사시간, 단 5분 만에 식사를 마친 한 조합원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눈을 붙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잘 먹어야 힘이 나지!
투쟁에 참가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마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투쟁으로 인한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지만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




분리수거는 확실하게!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5천 대 오가 모인 후 어지럽혀진 대회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매안, 제고하라!
500여 조합간부들은 매일 아침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며 대국민 선전전을 벌여 주파수 경매의 불공정함을 적극 피력해 시민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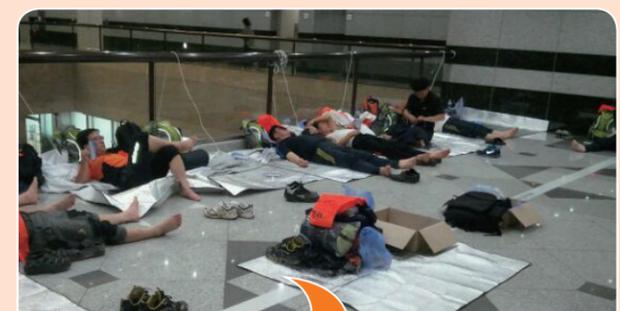
미래부는 장사꾼? 공공재인 주파수도 미래부 앞에선 그저 돈인 셈인가?
노동조합은 여의도·보신각·광화문 일대 집회와 거리행진은 물론, 총 일곱 군데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주파수 경매의 불공정함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폴리스 라인 앞에서 대열을 정비하는 참가자들!
간혹 행진을 할 때에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도 발생했으나 폴리스 라인을 지켜가며 평화적인 집회를 가진 덕에 11일간의 투쟁 기간 중 별 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일 투쟁을 위해, 본사 복도에서 숙면 중!
3박 4일의 조합간부 선도투쟁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분당 본사 사무실과 복도 등지에서 얇은 침낭에 몸을 맡긴 채 잠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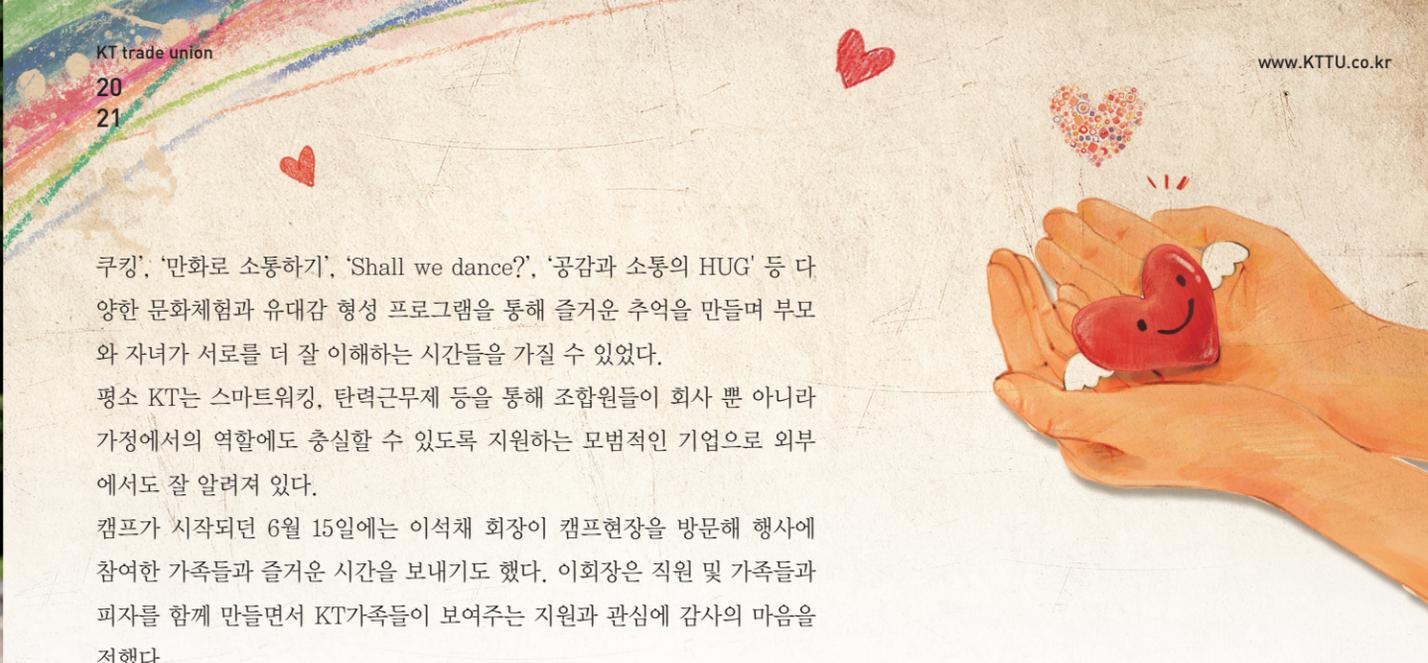
가족과 즐거운 시간! 업무 효율도 쑥쑥!

노·사가 함께하는 'olleh 가족캠프'

'노·사가 함께하는 olleh 가족캠프'가 지난 6월 29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이천시에 자리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KT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 캠프는 6월 15일부터 주말을 이용해 총3회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 가족들은 '소통'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는 알찬 1박2일을 경험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KT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노·사가 함께하는 olleh 가족캠프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가족 간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족은 3회에 걸쳐 기수별로 40여가족 약 140명씩, 초등학교 자녀를 둔 KT가족들은 1박2일 동안 '피자&파스타



쿠킹', '만화로 소통하기', 'Shall we dance?', '공감과 소통의 HUG'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평소 KT는 스마트워킹,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회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외부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캠프가 시작되던 6월 15일에는 이석채 회장이 캠프현장을 방문해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회장은 직원 및 가족들과 피자를 함께 만들면서 KT가족들이 보여주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가족들이 오후 2시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내 쿠킹 실습실로 모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순서는 '피자&파스타 쿠킹'.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피자와 스파게티를 직접 만들어보는 순서다. 4개의 조로 나뉜 가족들은 저마다의 실습실 테이블에서 준비된 재료를 앞에 두고 푸드과 교수님들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새라 열심이다. 우뚝 솟은 조리모자를 쓰고 보니 요리사로 변신한 모습이 꽤 그럴 듯하다. 조리하라,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라,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난생처음 조리도구를 잡아보는 아빠와 아이들부터 오늘날만큼 팔짱을 끼고 진두지휘하는 엄마까지. 더운 열기로 후끈하지만 기대감으로 저마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이다.

"아빠, 골고루 뿌려야지!", "우리 아들, 잘 만들었네!" 피자 도우를 함께 밀고, 토핑을 얹고, 면을 삶고, 가족이 단결해서 멋진 요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평소 음식 만드는 데는 관심도 없던 아빠도, 설거지는 나 몰라라 했던 아이들도 오늘은 술선수범 즐겁기만 한다. 모양은 뼈뿔뿔, 치즈를 너무 뿌려 조금 짜도 우리 가족이 만든 요리가 최고다. 드디어 완성된 피자 와 스파게티는 가족들이 함께 사이좋게 나눠 먹으니 더 좋다.

든든히 배를 채운 후 이어진 순서는 '만화로 소통하기'. 엄마 아빠의 추억이 담긴 만화에서부터 그림으로 알아보는 성격 등 오락이자 친구이고 행복이며 미래라고 표현되는 만화를 통해 정보를 잘 전달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자신을 글로 표현해보라는 교수님의 말에서는 웬지 시험이라도 치듯 모두가 진지하다. 막힘없이 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고개만 가우뚱하는 가족도 있다. 자신의 생각에 관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글로 표현한 것을 타인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는 새로운 내 모습들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대체 나를 이렇게 그린 게 누구야!"라고 소리 쳐보지만 괴상한 그림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이다. '릴레이 만화', '말풍선에 스토리 넣기' 등 부모와 자녀들은 평소 자주 나눌 수 없었던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면서 공감은 바로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을 가





졌다. 맛있는 저녁식사 후에는 체육관에서 신나는 댄스타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캠프가 열리는 토요일에 딱 맞는 '토요일 밤의 열기' 음악에 맞춰 신나는 디스코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다. 엉덩이를 빼죽 내밀고, 손을 힘차게 하늘로 찌르는 동작이 마음 같이 잘 되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질세라 엄마 아빠도 열심이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둔했던 몸짓은 어느새 음악을 따라 꽤 자연스럽다. 마치 뮤지컬의 주인공이 된 듯 흥겨운 춤사위에 체육관은 그야말로 토요일 밤의 열기로 가득 찼다.

다음날 오전, 부모들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HUG'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은 여름의 녹음이 가득한 교정을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보물찾기' 시간을 가졌다.

'공감과 소통의 HUG'는 TA(Transaction Analysis, 교류분석)를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성격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자아상태를 분석해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강의에 참여한 부모들은 에고그램 진단, 유형 파악, 속마음 진단, 유형별 응대 방법 등의 순서를 통해 각자의 스타일을 점검하면서 부부와 가족, 고객은 물론 앞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핸드페인팅 머그 만들기'로 저마다 개성이 듬뿍 담긴 머그잔을 직접 만들며 가족들은 뜻 깊었던 이번 여행의 추억을 남겼다.

KT커뮤니케이션 실장 김은혜 전무는 "진정한 GWP(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 내의 적절한 환경 및 정책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정적인 지원 또한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KT는 노사와 함께하는 olleh 가족캠프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와 정책들을 통해 회사와 가정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TERVIEW

지난 6월 29일에는 올해의 마지막 olleh 가족캠프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 참여한 40가족 가운데 열정이 돋보였던 두 가족을 만나 1박2일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가족은 ‘찬찬찬’이다!”



부산네트워크운용단 무선운용센터 와이브로망제어팀 이필영 조합원 가족

“우리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신청했죠. 구체적 체험을 통해 생각하게 만드는 알찬 내용들로 캠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2001년 KT에 입사 후 와이브로망과 LTE기지국 운용 업무를 하고 있는 이필영 조합원은 가장 거리가 먼 부산에서 참가했다. 이른 아침 나선 길이 피곤할 법도 한데 얼굴은 연신 웃음꽃이다. KT와 함께한 세월동안 가족도 늘어 슬하에 삼형제를 두고 있지만, 이번 캠프는 동생들이 어려 초등학교 3학년인 장남 수찬군만 동행했다. 사내아이만 셋이라 몸을 부대끼면서 놀아준다는 아빠는 주말이면 여행을 통해 생각을 키워준다고.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댄스를 즐기던 엄마 아빠가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피자&파스타 만들기. “음식을 함께 만들어 봄으로써 가족애를 한층 느끼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만화그리기가 제일 재미있어요!”라는 수찬군은 동생들이 얼른 커서 함께 오고 싶단다. 내년에도 반드시 캠프에 지원할 거라는 이조합원은 우리 가족을 ‘찬찬찬’이라고 정의한다. “수찬, 승찬, 유찬’ 삼형제의 이름과 우리 가족이 열정을 담아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죠. 기회를 마련해 준 KT.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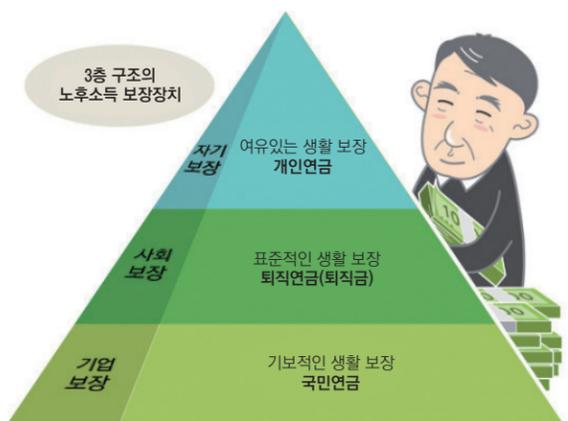


호남네트워크운용단 집중운용센터 IP망팀 조영철 조합원 가족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쌓아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몰래 신청했는데 운 좋게도 캠프에 참여하게 됐네요.” 호남네트워크운용단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철 조합원의 가족은 모든 프로그램마다 커다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가족이다. 초등학교 2학년 민준군과 유치원생 연서양, 두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모습 또한 진지했다.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가족의 일상에서의 소통방법은 산책, 특별할 것 없이 집근처를 가족이 늘 함께 산책하고 가끔 등산도 하며 가족애를 다진다. “놀이터에 자주 가요. 산에 가면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자연이 참 좋아요.” 민준군과 연서양의 가족자랑은 꼬이 없다. “처음 캠프 프로그램을 보고 ‘모처럼 가족과 공감할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특히 오고 싶어 했죠. 온가족이 다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에게 김치찌개와 자장면으로 썬씨자랑을 한다는 아빠를 치켜세우는 아이들. 흐뭇한 웃음을 짓는 조영철 조합원은 이번 캠프에서 배운 피자와 파스타를 요리목록에 추가할 작정이다. “이제 함께 피자과 파스타도 만들어야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가족을 한번 정의해 보자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 작은 손을 번쩍 들며 큰소리로 외치는 막내. “우리가족은요!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퇴직연금제도, 꼼꼼하게 살펴보자!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요즘,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퇴직 후의 인생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이란 과거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으로 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적 장치로서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26일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신설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금융회사들은 기업들을 상대로 수익률을 내세워 상품을 경쟁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472만 명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그 적립규모는 총 6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정작 본인이 가입한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관심을 갖는 이들은 적다.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분류된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사용자인 회사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퇴직급여는 변동이 없기에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좋을 경우 사측의 부담금은 감소하고 그 반대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용수익

을 더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이 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운용수익이 나쁠 경우엔 퇴직금이 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DB형 또는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이나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하거나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2012년 관련법의 개정 전에는 이직과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이 발생해야 IRP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선택을 자율에 맡겼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직과 퇴직의 사유가 없어도 DB형, DC형 가입자들이 추가적으로 IRP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IRP를 만든 후 개인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넣거나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할 수도 있다. 또한 중간정산이나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하여 받은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를 통해 수취하도록 변경되어 활용에 강제성을 띄게 되었다.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과 같다. 연금저축을 합해서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고정된 확정급여형(DB)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확정기여형(DC)은 소수다. 하지만 사업장 개수

로 보면 오히려 반대다.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DB형을 도입한 사업장보다 더 많다. 이는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들이 주로 DB형을 선택한데 반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DC형에 가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퇴직연금 비율에서 확정급여형(DB)이 많은 까닭은 안정적 성향으로 인해 현재 퇴직연금제도 아래에서 회사가 운영주체인 DB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DB/DC 혼합형 가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랑 비슷해 안정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DC형은 시장 수익률에 따라 이익이 높아질 수 있지만 리스크가 부담스럽다. 더구나 개인에게는 퇴직연금 상품의 약관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여러 곳을 비교하지 못하고 회사가 추천한 곳에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일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적립금의 50%는 DB형으로, 나머지는 DC형으로 나누어 넣을 수 있게 된다. 각 유형별 설정비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한번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근로자 개개인 손익과 연결된 DC 설정비율은 줄일 수 없다.

또한 지난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의 이전이 의무화되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엔 해지 시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퇴직급여가 이전되고 15일 이내 해지해 찾아가면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달랐던 수수료 부과방식을 통일해 근로자 등이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지연손해금 보상’ 조항 등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살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동안 적립했던 퇴직연금을 해지, 즉 중도인출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지불하고 해지해야 한다. 때문에 해지가 망설여진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고려해보자.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퇴직연금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출된다. 다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선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일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또 은행·보험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증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다. KT의 ‘퇴직연금제도’도 주요 골자는 모두 위와 같다. KT 역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혼합형(DB+DC)을 운용 중이며, 다만 혼합형의 경우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은 DC형, 이후 발생하는 적립금은 DB형으로 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KT '13년 1차 퇴직연금제 전환 결과

○ 유형별 신청현황

구분	확정기여형(DC)	혼합형(DC+DB)	합계
신청인원	2,228명	251명	2,479명
비율	89.9%	10.1%	100%

※ 혼합형 : [‘13.6.30일 이전 퇴직금은 DC형] + [7.1일 이후 퇴직금은 DB형]

○ 누계 현황(‘12. 8월 이후)

구분	‘13.1월(A)	‘13.7월(B)	비교(B-A)
확정기여형(DC)	2,679명	4,907명	2,228명
혼합형(DC+DB)	-	251명	251명
합계	2,679명	5,158명	2,605명
DC/혼합형 비율	8.5%	16.3%	7.8%

※ ‘13.3월 중도인출 126명(DC) 포함

직장인 대다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자신이 가입한 연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는 많지 않다. 퇴직연금은 그 특성상 길게는 30년 이상 가입하기 때문에, 단 1%차이라도 퇴직 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개발국가 여성정책 공무원, KT를 탐방하다!

여성친화제도, 스마트워킹의 벤치마킹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목적 방한 '양성평등정책,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루어 낼 것'



아프리카, 중동 등 저개발 국가의 여성 정책 공무원들이 지난 7월 5일, KT올레스퀘어를 찾았다. 이는 저개발 국가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유도를 위해 여성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한 행사로, KT측에 UCC참여 요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날 저개발국가 여성 공무원들은 올레스퀘어 곳곳을 견학한 뒤, KT의 가족친화경영 사례와 여성친화경영 제도에 관한 소개와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부탄의 아동여성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펜조르' 최고기획담당관과 '킵케치' 에티오피아

피아 여성아동청소년국 부장, '아룽' 미얀마 사회복지정책지원부 담당관, '아킨세모인' 나이지리아 여성부 사무총장 등, 각국에서 여성정책 분야를 이끌고 있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KT노동조합의 박호근 여성국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이전부터 여성인적 자원개발과 IT 분야의 중요성을 예견하여 활동해 온 결과, 현재 KT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실시하는 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아시아 국가와 저개발국가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오늘 모인 여성정책 담당관들이 그러한 인식을 바꿔 좀 더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박호근 여성국장은 뒤 이어 "오늘날 기업에게 있어 여성친화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나, 다양성이 증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 내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 할만한 여건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의 담당관들이 자국의 발전뿐 아니라 더 소외된 지역, 소외된 나라로 진보적 여성정책을 파생시킴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환영사와 선물증정에 이어 열린 'KT의 여성친화정책제도'에 관한 설명은 KT노동조합의 윤채원 국제부장이 맡았다. 영어로 진행된 관련 설명에서 윤 국제부장은 "KT노동조합과 KT는 채용부터 승진까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는 여성인재가 없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이슈를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출산육아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불임 휴직제도 등 KT노동조합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어린이집 지원, 사원 자녀들의 온라인 무료교육 시행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KT는 채용, 승진, 보수 등 모든 제도상 남녀차별을 없애고, 우수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사내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관련 정책뿐 아니라 KT의 스마트워킹 제도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스마트워킹이 기존의 사무실근무는 물론, 재택근무, 이동근무, 그리고 위의 3가지 유형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유연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근무형태이며 스마트워킹이 정착되면 연간 출퇴근시간 감소 25000년, CO2 감소 55만톤, 공간효율화 3300억원, 연료 절감 2억리터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더불어



IT서포터즈의 도움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본 각국의 참석자들은 유무선 통신, 인터넷, 와이브로, 클라우드 등 스마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KT의 환경에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부탄에서 온 '펜조르' 최고기획담당관은 "KT의 여성친화정책과 미래신성장 사업의 원천인 스마트워킹 제도에 신선한 감명을 받았다"며 여성과 국가가 상생 발전하는 KT 방식의 발전모델이 제3세계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한 뒤 "글로벌 세계경제 속에서 양성평등과 이의 제반 정책은 전세계적 공통과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국의 여성정책 담당관들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여성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KT노동조합과 KT가 축적한 지식재산과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저개발국과 공유하고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국제적 규모로 실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KT노동조합도 저개발국가 여성역량 강화와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저개발국 공무원 초청 교육연수사업을 UCC글로벌 활동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유자적 느리게 걷기

시간마저 쉬어 가는 곳, 슬로시티로 떠나는 느린 여행

빨리, 더 빨리! 쉼 없이 달려온 세월. 세상은 남보다 더 빨리 앞서가기만을 강요했다. 모두가 앞 다퉈 속도 경쟁에 뛰어들고 빠름의 미덕만이 강조 돼 왔다. 그 사이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나, 조심스럽게 되돌아보게 된다. 조금의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고 느린 여행을 떠나 보자. 느리게 걷다보면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 테니. 자, 이제 천천히 슬로 라이프의 기쁨을 만끽할 차례다.



천연염색체험 (사진 : 약초생활건강)

충북 제천 수산

제천은 자연 치유의 땅이다. 3대 약령시장 중 하나로 각종 약초와 약재가 풍부하다. 금수산과 가운산 줄기가 만나는 수산면 하천리에 위치한 약초체험마을은 다양한 약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연염색, 약초주머니와 약초비누, 약초베개, 스킨·로션, 연고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 5천원이면 은은한 약초향이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향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직접 재배한 개똥쑥, 박하, 감초 등 10여 가지 약초를 이용한 천연 방향제다. 약초 된장 등 친환경 양념을 이용한 약선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문의 | 055-884-1300,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247, www.chunghak.net

경북 상주 이안, 함창, 공검

상주 함창은 명주 마을로 전국 유일의 명주 산지이다. 지금도 전통 베틀로 명주 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용기마을에서는 용기장이 150년간 6대 짚 전통용기와 용기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한편 상주는 '자전거 천국'으로도 유명하다.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 부담률이 21%나 된다. 자전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박물관도 있다. 목마에 바퀴를 단 독일의 '드라이지네'를 비롯해 60여 종의 희귀한 자전거가 전시돼 있다. 200여 대의 체험 자전거도 갖추고 있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 054-533-2001, www.sangju.go.kr/tour



공검 오택호수 (사진 :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북 전주 한옥마을

전통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주 한옥마을은 국내에서 8번째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곳이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기만 해도 좋지만 무엇보다 고택 체험을 추천한다.

특히 학인당은 궁중 건축양식을 민간에 도입한 한옥으로 판소리 공연을 염두에 두고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 극장이다.

한옥체험과 한지 만들기, 천연 염색, 다례 수업 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밖에 보물 제308호로 지정된 풍남문 등 전주 곳곳에 숨겨진 문화재를 둘러보며 전주의 매력에 빠져들어 보자.

문의 | 063-281-2114, tour.jeonju.go.kr



전주한옥마을 (사진 :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북 완주 슬로푸드

유기농 슬로푸드가 풍성한 완주에는 다양한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 완주 효자동에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는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된장, 고추장 등 전통식품에는 생산자와 제조 공정 등을 모두 표기해 더욱 믿음이 간다.

완주마을여행사업단은 지역 마을, 농가, 레스토랑 등과 연계해 탈 만들기 체험, 벼농사 체험, 두부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이벤트 투어를 구성해 색다른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9월 27일부터는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도 열린다.

문의 | 063-717-7700, wanjublog.com



와일드푸드축제 (사진 : 완주군공식블로그 완주스토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국내 7번째,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곳이다. 남양주 조안면은 북한강이 남한강과 합류해 한강으로 흘러드는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유기농 먹을거리를 자랑한다.

지난 3월에는 슬로시티문화관을 개관하는 등 슬로시티 이념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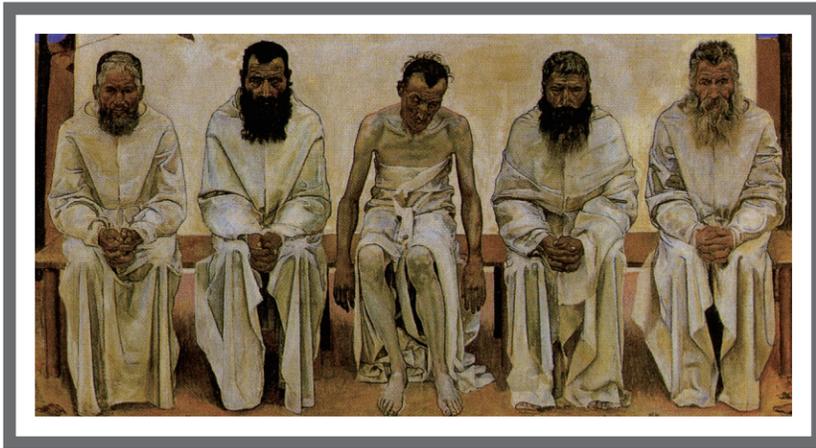
특히 팔당댐, 다산유적지 등 남양주의 명소 10경을 있는 자전거길이 인상적이다. 자전거만을 위한 길이라 위험하지 않고 천천히 달리면서 조안의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자전거가 없다면 능내역과 팔당역에 있는 대여소에서 빌릴 수도 있다. 가격은 1인용 자전거를 기준으로 1시간에 3천원, 1일에 1만원.

문의 | slowcityjoan.kr



다산길 연꽃마을 (사진 : 슬로시티한국본부)

지친 당신 삶에 심포를 찍어라



페르디낭 호들러, 「생에 지치다」, 1892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며 병원에 갔다. 알 수 없이 생겨난 물혹들과 여기저기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통보였다. 어디가 불균형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건강관리에 집착하는 시대에는 건강의 경고음을 울리는 몇몇 수치들이야말로 자신의 태만함과 무절제함을 노출시키는 징표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질병은 천벌이나 저주였다. 어느 특정 질병에 특히 잘 걸리는 성격이 있다고 믿던 때도 있었다. 바로 19세기의 서양인들이 그랬다. 이를테면, 폐결핵은 체내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시키는 사람, 가령 연인을 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나 몸을 쇠진시키며 시를 창작하는 낭만적인 시인이 잘 걸리는 병이라고 분류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암의 경우는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며 사는 사람에게 잘 찾아온다고 믿었다. 억제된 분노 같은 것이 표출되지 않고 응어리져 있다가 점점 괴물조직 같은 암 덩어리로 자라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해석은 질병의 속성에 사람의 성격을 빚댄 것에 불과할 뿐, 신뢰할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그런데도 병적 증상으로 마치 무슨 별자리 운세를 보듯 선부르게 사람을 유형화하는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가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으레 닭튀김에 맥주를 배부르도록 마시는 큰 체격의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기름진 식사나 육식을 즐겨하지도 않고 과식도 하지 않는, 차라리 영양부족 유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열정을 다해 지친 육체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보내야 할 30대 중반에 나는 마치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폐쇄적으로 지냈다. 고질적인 수면 부족에 제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책상에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다. 그땐 오직 논문을 얼마나 진전시키느냐가 생의 관건이었던 것 같다.

녹차를 비롯하여 건강음료들이 한창 유행이던 때였음에도, 나는 습관대로 낮 졸음을 깨기 위해 독한 자판기 커피만 마셔댔다.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며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졸업 후 학위증과 함께 남겨진 것은 눈 밑에 생긴 그늘과 처음 발견한 검버섯 몇 개, 커피로 인해 착색된 치아, 비타민 결핍과

만성피로, 그리고 완전히 뒤쳐진 유머감각이었다. 졸업 가운을 입으면서 거울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다. 초췌하고 아주 피곤해 보이는 한 여인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에 지치다」라는 페르디낭 호들러의 그림이 떠올랐다. 긴 의자에 앉은 그림 속의 한 노인이 연민의 눈짓으로 내게 자리를 조금 내어주며 앉으라고 말하는 듯하다.

스위스 출신의 상징주의자 호들러는 생로병사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화가이다. 그에게는 36세의 나이에 부모와 다섯 명의 남매를 모두 결핵으로 다른 세상에 보낸 아픔이 있었다. 「생에 지치다」에는 긴 의자에 수평으로 다섯 사람이 앉아 있다. 평평하고 반복적이고 좌우 대칭적인 구도는 이들의 삶을 더욱 지루하게 만든다. 사제의 의례용 가운 같은 것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있었나 보다. 아니면 생 그 자체가 수행이었을지도,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잔인하게도 세월은 이미 그들의 젊음을 앗아간 지 오래다. 생에 대해 깨닫자마다 죽음이 훌쩍 눈앞에 와버린 것이다.

졸업식 이후 나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벌이고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했다. 아침 일찍 한강변을 달리기 시작했다. 생과일주수도 만들어 먹고, 식단에도 신경 썼다. 강의 사이에 생기는 자투리 시간에는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올라갔고, 퇴근길에는 발품을 팔아 새로 열리는 전시회들을 보러 다녔다. 1년 동안 분명 동물성 콜레스테롤과는 관계 없는 삶을 살았다. 일부러 건강진단을 한 것은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성취감을 느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수치에 대해 씁쓸한 배신감만 맛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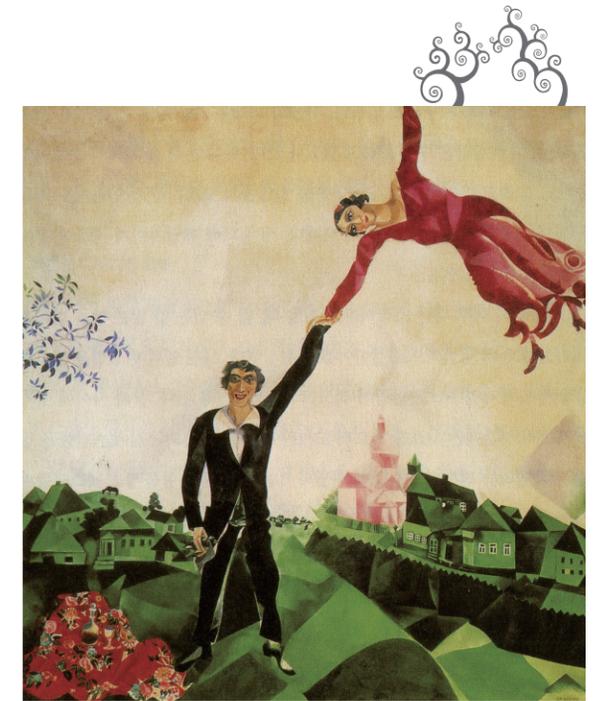
머릿속에 신선한 공기를

돌아가는 길에 차에 시동을 거니 '영어 프레젠테이션 쉽게 하기' 디스크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듣고 싶지 않다, 그것 대신 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렀다. 그동안 '제대로' 살겠다면서 실제로는 여유 없이 기계처럼 지냈던 모양이다. 웰빙이라는 이름의 교묘한 금융주의로 인해 알게 모르게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것이다. 몸을 기계처럼 부리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았다. 머리가 숨을 쉬어야 몸 안에 생산적인 토양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씨앗들이 움터나는 것이다.

머리가 숨을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산책이라고 생각한다. 산책은 기분을 유쾌하게 한다.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산책」에서처럼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거니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그 어느 것의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자유로움이 그림 속에 가득하다. 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 샤갈은 오래도록 동경해왔던 여인과 결혼하여 충족감에 젖어 있었고, 하늘을 붕 떠다니는 흐뭇한 꿈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화가가 기쁠 때 그린 그림은 세월이 흘러도 그 기분 좋음이 보는 이에게까지 전해온다.

건강과 생활습관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반드시 인과관계로 엮이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원인과 결과가 철저히 정확하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숨막히게 기계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세상의 인과관계란 느리고 느슨하게 이루어지기에 매력이 있는 것이다.

출처 | 이주은 <그림에 마음을 놓다> 앨리스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 「산책」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g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IMO운영센터 솔루션총괄팀 정원환

이번에 퇴직연금제가 변경 되는데,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주세요. 아직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연금제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수도권서부고객본부 주안지사 Retention팀 황정희

이번 '길'의 '황금 주파수는 국민에게' 라는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설명을 만화로 쉽게 풀어 써 내용이 어렵지 않게 전달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주파수 할당에 관련된 진행 상황과 상세한 내용도 듣고 듣고 싶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 화이팅!!

KT대방지사 리텐션팀 김경희

이번 호의 BIT의 개요 등 내용을 읽게 되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갑과 을' 의 내용에 대해 회사와 개인과의 관계 등 모르는 바를 배우게 되어 소양교육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문제도 만화로 읽게 되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 있고... 여러모로 현장에 성원을 보내주는 거 같아 근무시간마다 힘이 나는듯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을 많이 실어주셔서, 요즘 어려운 현업의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T선후배님들 힘내시고요, '길' 만드시는 관계자님들도 힘내십시오.

성남엔지니어링팀 기태환

KT는 아무래도 자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덜 활발할 줄 알았는데, 이번 노보의 해외사무소 리포트를 통해 우리 KT가 다른 글로벌 기업 못지 않게 활발히 해외진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 역시 해외 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추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이번 기사를 통해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상에 대해 잘 알게 되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해외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고객본부 남울산지사 심승복

'길'에서 여러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길에 대한 작은 바램을 말씀 드리자면, 희망적이고 재미있는 글과 그림을 조금 더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두운 소식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와 그 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이야기 등, 즐겁고 한번 더 미소 지을 수 있는 글을 많이 실어주세요.^^



KTTU QUIZ

최근 KT에 불리한 주파수 경매 방식을 제시하여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번 주파수 경매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 명칭은?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전국 웨딩협력사 안내

(주)다운플랜에서는 회원님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아래와 같이 웨딩협력사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웨딩 협력사	대표 또는 실무자	연락처	주소
서울	루미에스튜디오	김석진	02-511-5491 010-8920-2017	강남구 논현동 246-3
부산	김수영웨딩	김수영	051-635-2030 010-8848-2375	진구 범천1동
울산	목화예식장	윤정미	052-260-5555	남구 달동 1252-1
창원	MJ웨딩	이재문	055-264-0066 010-7400-4007	의창구 명서동 206-3
대구	플로라웨딩	김정희	053-431-1101 010-7164-0007	중구 대봉동 41-4
포항	티파니 웨딩홀	이미란	054-283-0077	남구 대도동 169-3
광주	마이웨딩	김영학	062-225-3861	동구 남동168-6
대전	연수원컨벤션	김윤오	042-535-7788 010-3453-6292	괴정동 KT인재개발원
대전	웨딩그룹정일품	유병무	042-242-0077 010-5435-6370	중구 은행동 125-7
전주	마리한웨딩	김인덕	063-232-2661	완산구 중앙동 상가
춘천	결만사	배정삼	033-244-4058 010-4538-0873	효자2동 647-6
제주	웨딩그룹	박종삼	064-748-0080	노형동 2494-8

- 각 웨딩 협력사에 대한 상품 내용은 협력사 마다 다르며, (주)다운플랜 회원님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협력사 마다 특징점을 살려 계약되었습니다.
- 각 웨딩협력사별 상품 내용은 협력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웨딩 협력사는 점차적으로 확대 보강할 예정이며, 다운플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운 1호 또는 다운 1-13호 가입회원은 모두 사용가능하며, 다운2, 3호 가입회원은 나머지 금액을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